



홍준표-명태균 커넥션, 여론조사 대납 문건도 나왔다.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 사퇴한 김에 정계 은퇴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자회견 내용을 바꾸십시오. 오늘 홍 전 시장이 할 말은 ‘대선출마’가 아니라 ‘정계은퇴’입니다. 대구시장을 사퇴한 김에 정계은퇴하십시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 전 시장 측은 제21대 총선 직전, 최소 7건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명태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에 의뢰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총 5,600여만원을 측근인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증언도 확보됐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도 이 문건을 두고 “여론조사 금액을 박재기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도 “홍 시장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은 홍 시장의 최측근인 박 전 사장에게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쯤 되면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할 사안이지, 대권 도전을 운운할 상황이 아닙니다.

수사가 이뤄져야 할 시점에 출마를 선언하는 것 자체가, ‘피의자 방패막이용 출마’, ‘도피성 대권놀이’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국민은 이런 기만적 정치 행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구시장을 사퇴한 김에, 정계 은퇴하십시오.

발언2 : 사실상 선거를 설계한 핵심 브레인, ‘홍핵관’ 명태균

충격적인 것은 명태균이 직접 홍준표 캠프 사무실을 방문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홍 전 시장은 그동안 명태균에 대해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작을 하던지 말던지 할거 아닌가?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던지 했을 거 아닌가"라고 딱 잡아 떼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소장은 2020년 3~4월쯤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명태균과 함께 홍 전 시장 사무실에 갔으며, 명태균이 직접 홍 전 사장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까지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소 7번이 넘는 여론조사 의뢰, 측근에 의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증언까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긴밀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명태균은 사실상 홍준표 선거를 설계한 핵심 브레인, ‘홍핵관’ 이라고 불려도 이상할 게 없는 수준입니다.

그동안 홍 시장은 명태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관련 의혹과 정황은 이제 차고 넘칩니다.

- 대통령 부부와의 비공식 회동을 명태균이 직접 주선했고,
- 총선·지선 등 선거 여론조사 개입 및 측근 대납 의혹,
-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명절 선물, 지인들의 구체적 증언까지.

홍 전 시장은 명태균 사건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증거, 증언이 나와야 합니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할 차례입니다.

대구시장 사퇴한 김에, 정계 은퇴하십시오. 국민 앞에 스스로 한 약속, 이제는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발언3 : 조작된 여론, 흠쳐낸 의석, 검찰은 당장 수사에 임하십시오

명태균이 진행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 내용도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대구 수성을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강혜경씨는 "유권자 성향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를 홍 시장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고 증언했습니다.

사전에 유권자 성향을 분석해, 홍 전 시장이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표본을 뽑아 ‘이기는 여론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한 여론조사 조작입니다.

홍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시 이인선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5선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결국 가짜 민심으로 진짜 의석을 차지한 겁니다. ‘이긴 선거’가 아니라, ‘속인 선거’, 국민을 기만해 권력을 얻은 ‘민주주의 사기극’이라 불려야 마땅합니다.

또한, 이 모든 조작이 과연 명태균의 ‘단독 플레이’였는지, 아니면 홍준표 전 시장 측의 ‘요청’과 사전 기획 아래 이뤄진 일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밀하게 배치된 7차례의 여론조사, 그리고 홍 시장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표본과 조작. 이게 홍 전 시장의 지시나 사전 조율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수사에 임하십시오.

발언4 : 대구시장 사퇴한 김에 정계은퇴하십시오.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된다. 그전 막을 수가 없다.",
"한번 더 그러면(재탄핵), 당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을 한 사람, 다름 아닌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그랬던 그가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의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윤건희를 감싸며, 권력을 탐하는 태도는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탄핵당한 당은 대선 포기하라던 자가 스스로 대권을 운운하는 이 모순된 행태, 그 자체가 국민 모욕입니다. 차라리 ‘기억이 없다’ 는 알박한 해명보다 ‘기억이 안난다’ 고 발뺌하십시오.

지금 홍 전 시장을 둘러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직접 받은 보고, 대납 정황. 하나하나가 ‘의혹’ 이 아니라 ‘사실’ 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 시장에게 필요한 건 ‘대선 출마’ 가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정계 은퇴’ 의 이행입니다. 이번 대구시장 사퇴한 김에 정계 은퇴하십시오.

검찰은 지금 당장 홍 전 시장과 명태균 간의 여론조사 대납 경위, 여론조사 조작 전모 등 전면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농단에 준하는 수준의 권력 유착, 불법 여론조사, 정치자금 위법이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눈치만 본다면, 국민은 검찰도 함께 단죄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진실규명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 의 통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된 지금, 명태균 황금폰에 담겼다고 알려진 14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도 낱알이 밝혀야 합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 단 장 : 서영교
- 부단장 : 김병기, 한병도
- 위 원 :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군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